

순천시, '용기 내 챌린지' 이목 집중

대학로 상인들 다회용기 음식 포장 등 실천 친환경 생활양식 전환 운동 각종 혜택 제공

순천대 대학로가 '용기내 대학로'로 탈바꿈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는 24일 "지난 8월부터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용기내 상점, 용기 주는 시민, 용기 더하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용기내 대학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기 내 챌린지'는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자는 '친환경

적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운동'이다. 최근 류준열, 브레이크걸스 등 많은 유명인들의 선행과 홍보에 힘입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용기 내 챌린지'는 점주의 생태감수성이나 지자체의 전략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순천 대학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용기 내 대학로' 사업은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순천시가 지난 6월 시민과 함께 문화도

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순천시민 아고라 포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용기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자'는 시민 아이디어가 1위로 선정됐다.

순천문화도시센터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지역 전문가, 청년, 문화예술 종사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일상 속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센터는 대학로 상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용기 내 챌린지를 직접 기획하도록 제안했다. 대학로 상인들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각 점포 별 특성에 맞는

혜택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안이라는 뜻을 모았다.

대학로 상인들은 요급 할인, 쿠폰 지급, 용량 추가 등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용기내는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로를 넘어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순천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순천은 '사람과 거버넌스'를 남기는 문화도시로 확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함께 하는 순천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하는 순천문화도시센터는 ▲탐블러 세척



순천시는 지난 8월부터 음식 포장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용기 내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순천대 대학로 상인들은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 내 챌린지'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소 ▲순천형 플라스틱 방앗간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거하세요 등 일상에서 생태문화를 <순천=남정민기자>



광양어린이보육재단에 후원의 손길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최근 정현복 광양시장, 강용재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박동근 광양읍이장협의회장, 이정찬 광양읍발전협의회장, 추우용 광양읍체육회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천413만원의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호남고속도로 장성 하이패스IC 설치 '순항'

郡, 접속도로 설치 공정 50% 완료... 道公 실시설계 용역

장성 북부권 일대 호남고속도로 이용 효율을 높여줄 '장성 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고속도로 접속도로 조성 사업을 맡은 장성군은 현재 공정 50% 가량을 마무리했다. 진출입로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이달 중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장성지역 내 호남고속도로 틀게이

트(요금소)는 장성읍 남부에 설치돼 있어 북부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컸다.

또한 장성읍 북부 농협물류센터와 보해공장 물류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10km 이상 남쪽으로 이동해야 해 경제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장성읍 북부권역인 영천리·유량리 일원에 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선정해 조속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은 진·출입로 위치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연결 승인, 한국도로공사 협의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은 뒤 올해 첫 삽을 떴다.

사업은 장성군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접속도로 공사(보해앞삼거리-국도교차로)와 한국도로공사가 맡은 하이패스IC 진입로(보해앞 국도교차로-졸음쉼터-고속도로), 진출로(고속도로 구산천-노란에션센터-방구다리) 신설로 구분된다. 접속도로는 0.46km, 진출입로는 1.4km 규모다.

장성군은 전체 공정 가운데 50%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중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와 소규모 영향평가도 진행할 방침이다.

유두석 군수는 "장성읍 하이패스IC 진출입로 신설은 한국도로공사 측에 사업을 신청한 76개 지자체 가운데 장성을 포함한 4개 지역만 최종 선정된 사업"이라며 "지열한 경쟁 속에 유치에 성공한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또 "호남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장성군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장성=김문태기자>

담양군, 예비 슬로시티마을 컨설팅 교육

담양군은 최근 담빛농업관에서 지난해 지정한 예비 슬로시티마을 3개소와 창평 삼지내마을 이장·주민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손대현 이사장이 담양을 방문

해 슬로마을 지정 요건과 공동체 활동의 중요성, 로컬리즘과 슬로시티의 연관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 참석자들과 각 마을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원을 슬로시티와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했다.

손 이사장은 예비 슬로시티 마을인 봉산면 방축마을에 들러 주민들과 마을 자원과 주민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 듣고 슬로시티 연계 마을 활성화 방안을 조언했다.

장경옥 녹색관광과장은 "슬로시티 가치 확산·이념 정착을 위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슬로라이프 디자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 강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

며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군 전역에 슬로시티로 재인증 됨에 따라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동참하는 주민참여형 슬로시티 마을 발굴·육성 등을 목적으로 봉산면 방축마을, 가사문학면 생오지마을, 금성면 가라실마을을 예비 슬로시티마을로 선정했으며 컨설팅 이후 슬로시티 마을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담양=정승균기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행정 총체적 점검을"

주중섭 여수시의원, 노동인권센터 독립 운영 촉구

최근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행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중섭(사진) 여수시의원은 최근 제214회 임시회에서 "고 흥정은 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언제까지 현장 실습 학생들에게 이러한 죽음이 반복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의 경우 전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지원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 5개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미성년자에게 집중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이다.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지시한 점과 수중작업 시 필수조건인 2인 1조 작업을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마리나 내에서 할 수 없는 따개비 제거 작업이 진행된 점과 '학습중심 현장실습' 등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점검이 요구된다"며 "이와 함께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기자>

화순 북림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郡, 110억 투입 동면 5개 마을 생활하수 적정 처리

화순군이 화순천 수질 개선을 위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북림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군은 24일 "화순천 상류 지역인 동면 5개 마을(창공·마산·무포·복암·경치)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위해 '북림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착공한 정비사업은 5개 마을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위해 1일 110t 규

모의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11.35km)와 276가구 배수 설비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화순천 수질 개선은 물론 화순읍, 동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도 확보 중"이라며 "하수도 행정 선진화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기자>

상가 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당진신축 (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배,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 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투자확신/강력추천!</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13억 (용6억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신항10분, 화력발전소 5분</p> <p>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컴퓨터제공,매주1회 물건스터디</p> <p>광주</p> <p>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감정가 18억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감정가 8억3천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6천 (9/28) 서구 동천동(아파트)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3억5천 (10/6) 서구 농성동(근린주택) ▶감정가 8억1천 →최저가 4억5천 (10/20) 동구 계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2천 (10/20)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1억2천 →최저가 8천9백 (10/29)</p> <p>전남</p> <p>화순군 백아면 (근린시설) ▶감정가 13억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감정가 68억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감정가 2억7천 →최저가 7천 (10/12) 곡성군 곡성읍(숙박시설) ▶감정가 1억 →최저가 7억4천 (10/27)</p> <p>시외</p> <p>부안군 번산면(숙박시설) ▶감정가 4억 5천 →최저가 2억 2천 (9/27)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감정가 38억 9천 →최저가 19억 (10/19)</p> <p>062-382-5500</p>